다산포럼

전쟁과 평화 사이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2002년쯤 얼마간 미국에 머물고 있던 때다. 주(州) 지방지 1면 톱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호전적인 시민, 신중한 참전용사"(Hawkish Citizen, Cautious Veteran)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한 주 의원들의 분위기를 이처럼 보도한 것이다. 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유사한 대립이 있었다. 직업군인 출신인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외교 우선'을 강조했다.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부득이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점점 기정사실화 되자 파월은 부시에게 충고했다. "가게 물건을 부수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Pottery Barn Rule)라고.

반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호언했다. '충격과 공포'의 전략에 따라, 첨단무기로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공중 폭격으로, 적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은 2001년 끔찍한 9·11 테러를 당하고, 이후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 30분 어둠 속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공습했다. 4월 9일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4월 14일 사담 후세인의 고향에 진입했다. 발발 26일 만에 사실상 전투는 끝났다. 전쟁 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는 찾지 못했다. 5월 1일, 부시는 항공모함 갑판에서 '임무 완수'를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미국은 마침내 2011년 12월 혼란스러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이라크 내부의 반목과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이라크 내의 내전과 폭력, 중동의 난민사태, IS의 국제테러 등 서방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오늘의 상황은 바로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됐다. IS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실직한 이라크 군인이라고 한다. 작전명 '이라크의 자유'(Freedom of Iraq)와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2006년 사담 후세인이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을 때, 북한의 위정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세인에게 대량살상무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랬다면 북한은 핵 보유가 단순한 협상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간주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헤아려 주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엄혹하다. 남북 공멸의 불씨가 될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대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강변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하자, 우리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규탄했다.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화 수호를 위한 대항론이라고 하지만, 영락없는 '북한 따라하기'다. 냉전시대 행태처럼 거울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모습이 똑같아지는 건가.

이제까지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다른 상황을 추측하기 어렵다.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강경론의 강화로 치달을 것이다. 목소리를 높이다가 어느 때는 그것으로 부족하여,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전쟁 불사다, 거친 비난과 강경한 발언이 금방 전쟁 나기 직전 상황까지 치닫곤 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치킨게임에 맡길 수 없다.

강온 대립에서는 늘 강경론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에 항복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척화론이 세력을 얻었다. 이후 내부 단속용으로 기능하며,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성호 이익은 '화전'(和戰)이란 글에서 척화론의 표리부동과 무책임함을 신랄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처형되었지만 주민은 평화를 얻지 못했고 일부는 게릴라가 됐다. 전쟁은 상황을 종료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과 전쟁을 초래했다. 북 정권이 핵으로 외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지만, 정권의 운명은 오히려 외부보다 내부의 민심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과 별개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외교 관계도 다시 숙고해야 한다.

고(故)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는 상인적 실용주의와 창의성을 보여 주었다. 체제 경쟁의 결과와 민족 공영의 미래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다시 한 번 창조적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창조적 리더십은 일방적이고 배타적 분위기에서는 나올 수는 없다.

NGO 칼럼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

문 정 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인근 철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박모(29)씨가 교량 보강 공사를 하던 중 하천으로 추락했다. 추락 직후 구조대가 다리 밑을 수색했지만 그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지 꼭 100일 째가 되었다. 100일이 지났지만, 900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

우리는 작은 한숨을 내뱉으며 그 불운이 우연히 나를 피해갔음에 안도할 뿐이다. 사람들은 청년이 미래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이 사회의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며 불투명한 미래 앞에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다.

필자는 2010년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 후 구직활동에 나선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다. 주로 특정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일터가 변변치도 않은 청년들이 만들었다니 의아해 하는 눈길도 있다.

청년유니온은 5년 전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피자 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위험한 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주요 피자 업체들의 '시간 내 배달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던 '주휴 수당' 지급을 이끌어 냈고,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노동 밖의 노동으로 취급되어 대변되지 않았던 미용실 스텝, 학원 강사,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대학 시간제 강사 등의 노동을 주목하게 했다.

그간 나름의 의미 있는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5년 만에 '30분 배달제'는 '20분 배달제'로 부활해 지난 6월 또 다른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배달 사업의 확장과 동종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20분 배달제'는 부활했고, 이를 위해 배달 노동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7~8분에 불과했다. 사고 직전 고인이 동료와 나눈 메시지에서는 늘어나는 주문과 쫓기는 시간 사이에 분초를 다투던 그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 고통 뒤에는 롯데리아라는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이 있었고, '더 빨리'를 외치는 우리가 있었다.

실제로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박한 배달 시간과 과도한 배달물량 등에 따른 무리한 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한 이들이 52.6%나 됐다.

얼마 전 한 청년이 광주 청년유니온의 문을 두드렸다.

매일 새벽 직업소개소를 통해 '막노동 일거리'를 얻는 20대 청년은 어쩌다 청년유니온을 알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다니던 고등학교에 학비를 낼 수 없었던 그는 '돈 없으면 학교 나오지 말라'는 선생의 고함에 그 길로 학교를 나왔다. 그 뒤로 아버지를 따라 하던 막노동은 이제 그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노동이 되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에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다 한 번 가는 청년유니온 모임에서 만난 또래들도 다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왠지 자기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래도 무언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일터에서 겪은 부당함, 구직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지금보다는 사는 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가 마음에 싹튼다.

그와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우리들'을 찾아 나서려 한다. 분초를 다투며 마음을 졸이는 친구들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불편부당한지 알고 있지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저항할 이들이 곁에 보이지 않아 단념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에 안도해야 하는 청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변화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기 고

광주정신을 그리다

변 길 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광주정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작 광주의 보통사람들은 그 신조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부 폴리페셔들이나 정치인들은 광주정신을 뱀장수의 단골 레파토리인 '비암'처럼 여기는 것 같다. 광주정신은 실체인가? 아니면 실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가? 광주정신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광주에는 민주·인권·평화라는 말이 있다. 광주는 민주의 도시,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이자 표현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자. 광주가 다른 도시보다 더 민주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보다 더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다른 도시보다 더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가?

비전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철학적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반영이 안 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광주는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민주화의 성지로 불린다.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자산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광주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비엔날레를 맞아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광주를 찍고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의 화려한 밤바다를 즐기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주만의 특성을 가지되 동시에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 단언컨대, 바로 그것이 광주의 문화이고, 광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문화와 정신은 현재에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끊임없이 진화하고, 시민의 자긍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여기 광주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시가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정영창"전이 그것이다. 광주정신이 광주만의 협소한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 위대한 인류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화가 정영창은 한국 민중미술의 범주에 속하는 작가가 아니다. 그는 1980년대 초반 독일로 유학하여 카셀 미술대학,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을 졸업하였고, 뒤셀도르프에서 30여 년간 특유의 회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1920년대 독일로 망명하였던 조선인 이미륵이 문학을 통해 한국인이 유전자에 가지고 있었으나 미처 잊고 있던 정서를 상기시켜주었다면, 1980년대 독일로 갔던 정영창은 회화를 통해 20세기 격동의 시기를 거쳐, 21세기 초반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진 한국에 자유와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 한국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이른바 세월호 침몰사건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250명 등 총 304명이 목숨을 잃었던 모든 과정이 텔레비전에 생중계되었으며, 구조와 사후 수습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드러났다. 한국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일본의 침략, 남북분단, 한국 전쟁, 군사쿠데타와 군사독재, 라인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한강의 기적,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성취와 그 반동, 세계 최빈국(1950)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2015)으로의 성장은 한국에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은 태풍의 핵 안에 위치하여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소중함을 말이다. 극단적 불평등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체념하고 당연시 여기지 않았던가. 화가 정영창은 멀리서 우리 한국인들이 간과했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들이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한국 분단의 고통을 상징하는 교수 서 승, 가톨릭 신부 문규현, 축구선수 정대세 등의 대형 인물 초상을 통해 예술적이고 품격 높은 방식으로 한국의 분단과 군사독재 시절의 슬픈 역사를 상기시켜주었고, 기존의 한국미술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과 명확한 주제의식으로 관객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서 그의 시야는 불행했던 한국의 역사에만 천착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업의 시간적 범위는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100여년에 걸쳐 있으며, 그는 체르노빌부터 후쿠시마 그리고 세월호까지, 카미카제부터 드론까지, 죽어가는 보통사람의 모습부터 아름다운 인체의 모습까지 모두를 아우르며, 그는 예술을 통해 인류의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흑과 백 그리고 생과 사의 대비와 조화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며 광주정신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다.

社 說

귀향 활동 정치권 추석 민심 제대로 살펴야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벌써 이른 귀성길을 재촉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차례상 준비에 분주하다. 비록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어도, 추석은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명절이면 정치권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너나없이 연휴 내내 지역구 곳곳을 찾기 마련이다. 내년엔 대선까지 예정돼 있으니 여야 대권 주자들 역시 전략지로 떠오른 광주·전남을 빈번하게 찾을 것이다. 그들은 지역구에 와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아무래도 명절 분위기와 무관한 이들이 많다. 올 추석 유독 지역 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던 조선과 해운업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그 파장이 지역 전체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근로자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 영암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조선업계, 해운 물류난 파도가 덮친 광양 컨테이너 부두 여파로 지역 경제계에는 한숨만 늘고 있다.

여기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작황 부진과, 적조와 수온 상승으로 어패류 집단 폐사까지 겹쳐 농어민의 주름이 깊어졌다. 더욱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명절 특수마저 실종돼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귀향활동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이런 실상을 똑똑히 보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 으레 지역구민을 만나 악수만 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직접 고충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절박한 하소연부터 잘 들으라는 주문이다.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야 해결책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가 끝나면 또 직접 보았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

온정의 손길 '뚝' 명절에도 쓸쓸한 복지시설

내일모레면 추석이다. 기나긴 한가위 연휴도 시작됐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유례없는 폭염에 지쳤기에 가을과 함께 찾아온 명절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이 되레 쓸쓸한 사람들도 많다. 특히 복지시설에는 온정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다. 경기침체가 원인이겠지만 갈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 않나 싶다.

후원 물품이 많이 줄어들면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느 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렇게 호소한다. "명절 때면 개인과 기관 곳곳에서 답지하던 과일과 쌀 등 후원 물품이 몇 해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줄어든 후원 물품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찾아오는 방문객이 없다는 것이다. 명절이면 늘 찾아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줄었다니 안타깝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각박한 세태여서 명절이 오히려 괴로운 사람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귀성은커녕 당장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추석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소외받는 이웃들을 명절에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듬어 줄 수는 없을까.

명절이면 불우한 이웃은 온정이 그립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아쉽다. 나눔이 절실하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無 等 鼓

고향가는 길

제본된 옛 신문철이 아니어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특정 단어를 입력해 수십 년 전 관련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다. 묵은 신문 기사를 들춰보며 시대별 귀성 풍속도를 살펴보자.

1960년 귀성 르포 기사에서는 '인간 통조림을 이룬 귀향열차'라는 표현이 보인다.(경향신문 1960년 10월 2일자) 1970년대에는 밤늦게까지 열차를 타지 못한 귀성객이 서울역 앞 지하도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새우잠을 자거나, 경찰들이 몰려드는 귀성객 통제와 질서유지를 위해 5m 가량의 장대를 휘두른다는 이색적인 내용도 실려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대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 경찰 간부는 실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관내에 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추석 장대 70개를 만들었으나 모두 부서져 없어지고 올 구정에 만든 50개도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졌다는 것."(경향신문 1978년 2월 10일자)

승차 무질서로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1960년 1월 서울역과 1974년 9월 용산역에서 승객들이 귀성열차를 타기 위해 앞다투어 플랫폼으로 뛰다가 넘어지며 압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시대를 막론하고 명절 때마다 으레 판을 치던 암표(暗票) 관련 뉴스도 줄을 잇는다. 1992년에는 밤새워 추석 귀성열차 표를 예매하려는 귀성객들에게 암표를 팔아 부당 이익을 취한 30대 암표상에게 처음으로 실형(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1981년에는 자정을 넘겨 도착한 승객들에게 경찰이 야간 통행증을 나눠 주는 사진이 실려 있다.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1982년 1월)되기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한가위 대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올해도 귀성길은 가는 길도 되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승용차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사정 때문에, 기차·항공편은 예매를 하지 않았다면 표 한 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지만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마음만은 시대가 변해도 한결같으리라.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